

월요광장

지적 허영과 전지적 태도에서 벗어나기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정확한 사실을 알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일에 관한 자료를 찾아 보면 엉터리 정보는 물론 의도가 보이는 결정적인 왜곡도 자주 확인하게 된다. 이는 모든 것에 있는 '맥락'이라고 하는 앞과 뒤의 흐름이 끊겼기 때문이다. 맥락은 상황의 표면 뒤에 있는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몫을 한다. 그래서 맥락을 꿰고 영동한 것으로 채우거나 비틀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 우리가 대화하고 글을 읽는 이유는 서로 생각을 전하고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의 쓰임새가 본래의 역할을 벗어나면 궤변과 조롱, 가치 판단의 독선, 도덕성의 지적에 집중하면서 본질은 가려진다.

이런 식의 대화나 언어 사용의 밑바닥에는 애써 보려 하지 않아도 깊게 자리

잡은 거대한 지적 허영이 있다. 지적 허영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모른 채 거꾸로 상대방의 무지를 훈계하고 계몽하려는 과도한 열정과 욕망이다. 이 지적 허영은 무지는 심각한 결함이며 열등함이라는 불안과 강박을 뒤집는 것이기도 하다. 지식에 대한 과도한 욕망과 집착은 한 톨이라도 더 알아야 외면당하지 않고 관심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생존의 전략'과 무관하지도 않다. 문제는 지적 허영이 강할수록 자신의 무지에 대해 깨닫는 길에서 멀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 이르르면 이미 낚아서 누더기가 된 지적 허영의 외투를 입고 독단과 위선의 외집을 되풀이한다. 물론 그럴수록 더 남루하게 되지만.

무지에 대한 성찰을 철학의 중요한 본질로 본 철학자가 소크라테스다. 그에 따르면 세상의 근원적 무지는 자신의 무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다. 그래서 그는 "나는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라고 역설한다. 이 말의 실천을 위해 소크라테스는 난해한 관념적 언어 대신 거리의 대화를 통한 '철학하기'로 일생을 보냈다.

말 잘하는 기술이 지적 허영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될 때, 그 대가는 비싸다. 도구적 지식은 지혜가 아닌 독단과 위선의 무기가 되고, 얇은 삶과 모순되고 분리되는 결과를 낳는다. 소위 전문가거나 지식인들에게서 혐오스러움 만큼 자주 보는 모습이다. 자신의 탁월한 식견과 판단을 마치 고장 난 세상을 위한 최고의 처방이라는 태도로 선심 쓰듯이 던져 준다. 날카로운 논리와 따라잡기 어려움만큼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어느 지식인은 대중의 무지공매함을 안타까워하며 최근에는 강연 도중에 눈물 바람까지 하지 않았던가. 이 양심과 사명감으로 뭉친 지식인의 절대적이고 전지적 자세에 그저 입이 다물어진다.

지식의 유통 기간은 갈수록 짧아지고, 세상은 언제나 반짝이며 나타나는 새로운 것을 환호하는 법이다. 현실이 이러하니 늘 앞서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도 한 이상한 일도 아니다. 하물며 우월적 지식과 전지적 태도로 존재가치가 좌우되는 전문가와 지식인 노릇은 보통 힘든 일은 아니다. 다만 이 모든 현상은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전문가 사회를 강요하게 되며, 종속을 주체적 선택으로 착각하

게 한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삶을, 비판적 사상가인 이반 일리치는 식민지적 삶이며 지식의 상품화라고 경고한다.

다시 말하면 전문가의 상품화된 지식은 진열대 위의 상품과 비슷하다. 계속 새로운 지식을 내놓지 못하면 진열대 위에서 버릴 수 없다. 진열대 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말 잘하는 기술, 무슨 무슨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악다구니를 쓰거나, 지식의 '세일'을 해야 한다. 이 구조의 작동 원리에는 한 줌도 안 되는 지적 허영을 유감으로 기거하 지식 식민지의 공범자 대열에 합류하는 수많은 '우리'가 자리한다.

지적 허영은 종속을 강요하는 지식의 힘을 쫓고, 무지의 성찰은 종속을 거부하는 지혜의 길을 향한다. 죽음의 무게마저 망자가 남긴 것에 따라서 달리하는 세상이다. 모든 것이 갈수록 더 거칠어지고 독해지며 언어는 가시처럼 사나워진다. 하지만 흔히 빈틈없는 논리라고 말하는 것조차 종종 자신의 무지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다. 이때 우리의 무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지에 대한 용기 있는 고백이거나, 모르는 것에 대한 정직한 침묵이다.

기고

보성에서 산다는 것은



최병민
보성부군수

어린 시절, 일명 열 고개, 스무고개 놀이를 하였다. 이런 식이다. 사회자가 "이번에는 지역 맞추기입니다"라고 말한 후 슬며시 힌트를 준다. '의병' '상수십이' (尙有十二) '나철' 등등.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는다. 아홉 고개쯤 '오막', 열 고개에서 '늑차' 가 나오면 그제서야 손을 드는 이들이 많아진다. '보성'이라는 답을 맞추면 연필 두 자루를 상품으로 주는 놀이쯤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군이 열 고개 얘기를 꺼낸 이유는 '키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이다. 지난 1월 1일자로 보성 부군수로 부임한 이후 업무 파악을 하는 중에 보성군이 키위를 252ha에서 4500t을 생산하여 전국 1위

라는 통계를 접했다. 순간 멍했다. 마트에서 아주 가끔 사먹던 키위를 보성에서 제일 많이 생산한다고? 필자가 무식한 건지, 보성군에서 그동안 비밀로 해 온 건지 헷갈리는 순간이었다.

그때 가까스로는 아내 그리고 친구, 동료에게 '보성 키위'를 아냐고 물으니 반응은 '전혀 모르는데' 표정이었다. 주위 사람의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보성군이 이를 비밀로 감춰왔던지 두 가지 중 하나이리라. 이제는 모두에게 공개한다. '보성하면 키위' '키위하면 보성'을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셨으면 한다. 흑여 첫 고개 단어로 '키위'하고 주어진다면 곧바로 '보성'하고 답이 나오게끔 말이다.

실상 먹어보니 맛도 일품이다. 레드키위, 골드키위, 그린키위 등 세 가지 키위를 놓고 맛을 비교하며 먹어보는 호사라 누린 바 있는 필자는 참 행복한 사람임이 분명하다.

다음은 '보성 의병'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국난에 어느 지역이라도 의병이 넘쳐 났지만 보성 의병이 단연 돋보인다. 호남절의록에 따르면 임진왜란 호남의

병수 904명 중 64명으로 기록돼 있다. 전남 의병 숫자가 904명인 자체가 말이 안되기에 보성군은 2018년에 임진왜란 건지, 보성군에서 그동안 비밀로 해 온 건지 헷갈리는 순간이었다.

장인어른(방진)을 보성 사람으로 둔 이순신 장군께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尙有十二)라고 선조 임금에게 장계를 올렸던 곳! 보성 읍내 열선루이고, 조성면 중앙장에서 군량미를 확보해 군사를 모아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끈 밀바탕이 된 곳 역시 보성이다.

이 외에도 광해군의 스승이자 전라좌도 의병을 창 의한 죽전 박광전 선생, 뒤를 이은 임계영 의병장, 해상 의병장 전방삭 장군, 모의장군 최대성, 안방준 의병장 등이 있다. 그뿐인가. 가까이로는 을사오적 암살단을 조직하고 대종교를 창시한 홍암 나철 선생이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이자 독립문을 세우고, 독립신문을 창간한 송재 서재필 박사도 있다. 한말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게 했던

담살이(머슴) 의병장 안규홍,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전통 음악을 오선보로 지켜 냈던 민족음악가 채동선 등 이름 있는 자로 또는 이름 없는 자로 나라를 위해 발걸음 '보성의병사'를 발간하였는데 그 숫자가 무려 777명이다.

끝으로 보성에서 살아가는 현재의 보성 사람 이야기를 꺼내 놓자면, 부임하면서 막연하게 여세고 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지역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씻겨 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만나는 사람사람이 왜 이리 순박하고 시골의 그윽한 정을 간직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도시화가 늦었기에 그러하다는 이야기로 치부할 이유는 없다. 훗날 2023년 호남고속철도가 보성역에 궤를 내지르면 다닐 때에도 간직하고 있을 본래의 품성이 지났겠는가.

"명마는 낙인으로 알고 사람은 눈빛으로 안다"는 말이 있으나 보성에 산다는 것은 낙인과 눈빛마저 필요 없는 것임을 새삼 확인한다.

기고

인류 역사를 바꾼 전염병



김한호
문학박사·문학평론가

인류 종말에 대한 예언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돼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 과학자 중에는 100년 안에 기후 변화, 핵방사능, 전염병 등으로 여섯 번째 멸종이 오면 인류의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지구는 46억 년 전에 생성되어 35억 년쯤 박테리아와 같은 원시 생명체가 탄생하여 진화해 왔다. 그런데 다섯 차례의 멸종 위기로 동식물의 99%가 사라지고 새로운 종이 나타나면서 500만 년 전에 원시 인류가 등장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위협은 전쟁, 굶주림, 전염병이었다. 전쟁이나 굶주림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지만 전염병은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았다. 전염병은 한번 창궐하면 인명 피해가 막대하여 국가가 멸망하거나 사회가 해체되어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놓기도 했다. 천연두를 비롯하

여 페스트, 한센병, 매독, 콜레라, 황열병, 말라리아는 인류 역사를 바꾼 전염병들이다.

전염병의 원조인 천연두는 기원 전 12세기경 이집트에서 발병하여 인도, 중국을 거쳐 전 세계로 퍼지면서 3천 년 동안 3억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 갔다. 1519년 멕시코를 침략한 스페인 군대는 원주민들에게 천연두를 퍼뜨려 잉카 제국을 정복했다. 14세기 유럽에서는 페스트(흑사병)가 만연하여 인구의 3분의 1인 2500만 명이 죽었으며, 중세 종교와 봉건 제도가 무너졌다.

최근 100년 동안 100만 명 이상 사망자를 낸 전염병은 에이즈, 스페인 독감,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 에볼라, 콩고 홍열, 서아프리카 뇌수막염 등이 있다. 그중에서 원숭이로부터 감염된 에이즈는 50년 동안 3900만 명의 목숨을 앗아 갔다.

최근에는 지구 환경 변화와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으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고 있다.

2002년에 중국 광둥 지방에서 발병한 '사스'는 전 세계 8273명이 감염되어

774명이 사망했으며, 국내에서 세 명이 감염되었으나 사망자는 없었다. 2009년 멕시코에서 발병한 '신종플루'는 214개국에서 수백만 명이 감염되었으며, 국내에서는 76만 3759명이 감염되어 270명이 사망했다. 2015년 중동 지역에서 발병한 '메르스'는 전세계 1367명이 감염되고, 국내에는 186명이 감염되어 38명이 사망했다. 2019년 12월에 중국 대륙의 교통 중심지인 1100만이 사는 우한시에서 폐렴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여 수만 명이 감염되고 1000명 이상이 사망하여 14억 중국인뿐 아니라 78억 지구촌이 공포에 떨고 있다.

신종 바이러스는 중간 숙주가 있는데, '사스'는 사향고양이가, '메르스'는 낙타가 원인이었지만 이들에게 박쥐가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한 폐렴의 발병지인 화난시장에서는 박쥐를 비롯하여 뱀, 쥐, 사향고양이, 전갈, 해마, 악어, 코알라, 곰 밧바닥, 모기 눈깔, 살아있는 원숭이 골 등을 날로 먹거나 튀겨 먹는다. 박쥐의 몸에는 150여종의 바이러스가 기생하고 있어 사람이 날로 먹거나 상처를 통해서 신종 바이러스가 감염된다.

세계적으로 1000여 종이나 되는 박쥐는 포유류 중에서 유일하게 날 수 있는 동물이다. 박쥐가 날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포유류보다 체온이 2-3도 높아 면역 체계가 강한 덕분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

그래서 박쥐와 몸집이 비슷한 쥐는 2년 살지만 박쥐는 20년이나 오래 살면서 각종 바이러스를 퍼뜨린다. 그러나 박쥐는 해충이나 과일을 먹고 살며, 꽃가루받이를 도와주고 초음파를 이용하여 모기를 하루에 3000마리나 잡아먹는 이로운 동물이다. 그래서 동식물 전문가들은 사라져서는 안 되는 동물로 영장류, 박쥐, 벌, 균류, 플라크톤을 꼽고 있다.

박쥐와 같이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동물을 날로 먹는 중국은 신종 전염병의 발생지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을 중국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G2 국가로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하여 중국 역사가 바뀌게 될 것이다. 게다가 오직 한 종(種)뿐인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치명적인 전염병에 감염되어 전 세계로 퍼진다면 인류의 종말이 올 지도 모른다.

社說

영화 속 빈부격차 현실에서는 사라지도록

영화 '기생충'은 현대 사회의 빈부격차와 불평등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 세계인의 공감을 얻었다. 상류층과 극빈층의 삶을 극단적으로 대비시키며 계급 질서를 풍자한다. 한데 이러한 양극화는 광주·전남 지역 사회 곳곳에서도 현실로 존재한다.

영화에서 주거 빈곤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반지하' 주택만 해도 그렇다. 김종훈 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기준 반지하 주택은 광주가 313채, 전남은 407채로 집계됐다. 지적 허영은 종속을 강요하는 지식의 힘을 쫓고, 무지의 성찰은 종속을 거부하는 지혜의 길을 향한다. 죽음의 무게마저 망자가 남긴 것에 따라서 달리하는 세상이다. 모든 것이 갈수록 더 거칠어지고 독해지며 언어는 가시처럼 사나워진다. 하지만 흔히 빈틈없는 논리라고 말하는 것조차 종종 자신의 무지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다. 이때 우리의 무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지에 대한 용기 있는 고백이거나, 모르는 것에 대한 정직한 침묵이다.

영화에서 주거 빈곤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반지하' 주택만 해도 그렇다. 김종훈 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기준 반지하 주택은 광주가 313채, 전남은 407채로 집계됐다. 지적 허영은 종속을 강요하는 지식의 힘을 쫓고, 무지의 성찰은 종속을 거부하는 지혜의 길을 향한다. 죽음의 무게마저 망자가 남긴 것에 따라서 달리하는 세상이다. 모든 것이 갈수록 더 거칠어지고 독해지며 언어는 가시처럼 사나워진다. 하지만 흔히 빈틈없는 논리라고 말하는 것조차 종종 자신의 무지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다. 이때 우리의 무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지에 대한 용기 있는 고백이거나, 모르는 것에 대한 정직한 침묵이다.

5·18 왜곡 지만원 씨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이라고 왜곡한 지만원 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지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고령인 데다 증거 인멸 혹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5·18 단체들은 즉각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 씨는 80년 당시 시민군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여러 차례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지 씨가 '광수'라 부른 사람들은 실제로는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로 판명된 바 있다.

때문에 5·18 단체들의 반발은 당연해 보인다. 5·18부상자회 김후식 전 회장은 "지 씨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해 줄 것이 라는 기대와 바람으로 4년 동안 재판만

계정의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최상위층인 5분위 월평균 소득은 980만 원. 최하위 계층인 1분위 소득은 137만 원으로 무려 일곱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정부가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극빈층인 광주·전남 기초 생활 수급자는 16만 3196명(11만 5178가구)에 달한다. 저소득 위계층까지 포함하면 25만 명의 저소득층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려 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와 불평등은 날로 심화하고 고착화되는 반면 계층 이동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극단적 불균형과 양극화는 대중의 분노를 불러 사회적 갈등을 키우게 된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 및 지자체는 빈부격차의 실상을 영화 속 이야기로만 치부하지 말고 소득과 분배 개선, 일자리 창출, 빈곤층 주거 환경 개선 등 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진행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을 넘어 분노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5·18 구속부상자회 문홍식 회장 역시 "지 씨를 유죄라고 인정하면서도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은 판결로 그 의미가 퇴색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 씨의 법정 구속 무산에 대해서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산물이라는 시각도 있다. "뚜렷한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을 면한 것은 지 씨 역시 민주주의 혜택을 받은 것"이며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판결을 내린 사법부가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5·18 왜곡·폄훼를 종식하는 첫 신호탄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이번 판결이, 약의적으로 5·18을 왜곡·폄훼해 온 세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그들이 반성하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無等鼓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하데스 왕국에는 모두 다섯 개의 강이 있다. 아케톤(슬픔), 코키타스(탄식), 플라게톤(징화), 레테(망각), 스틱스(증오)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레테의 강은 망자가 죽음의 신 하데스가 관장하는 명계(冥界)로 들어가기 전에 건너야 하는 강이다. 이곳의 강물을 마신 망자는 과거의 모든 기억은 물론 전생의 번뇌를 잊게 된다. 레테의 강을 망각의 강이라 부르는 이유다.

루비콘강은 이탈리아 북부 아드리아해로 흐르는 강이다. 로마 제국 당시 이곳에는 불문율이 있었다. 파견된 군대가 루비콘강을 건너 로마로 돌아올 때는 반드시 무장을 해제해야 한다는 원칙이 그것이다. 기원전 49년 카이사르는 군대를 해산하고 오라는 폼페이우스와 원로원의 명을 따르지 않고 로마로 진격한다. 오늘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진행된 상황을 '루비콘강을 건넜다'라고 하는데, 이는 당시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너 데서 연유한다.

자유한국당이 최근 새보수당 등과의 합당을 의결하고 당명을 '미래통합당'으로 결정했다. 제1야당으로서의 외연을 확대

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 차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보수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전제 조건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등 3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보수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당 행태는 정당정치의 본질을 벗어난 데다 비상식적이다.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것도 모자라 '5·18 망안'의 주역 이종명 의원 등 일부 의원을 쫓아 제명 후 이적시켰다. 그 뿐 아니라 위성정당의 사·도·당 가운데는 주소가 한군구 사·도 당사와 같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참고로 당사로 등록하기도 했다.

제1야당이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넌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그 강이 폼페이우스와 원로원의 명을 따르지 않고 로마로 진격한다. 오늘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진행된 상황을 '루비콘강을 건넜다'라고 하는데, 이는 당시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너 데서 연유한다. 자유한국당이 최근 새보수당 등과의 합당을 의결하고 당명을 '미래통합당'으로 결정했다. 제1야당으로서의 외연을 확대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